

상습 여부에...운명 갈린 ‘스쿨 미투 교사’

광주 21명 중 정서적 학대 인정 9명 기소... 12명은 불기소
불기소 교사 교단 복귀 땀 일부 학생·학부모 반발 예고

‘상습여부’가 광주스쿨 미투 교사들의 운명을 갈랐다. 다수학생을 대상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하는 등 경향성·의도성을 보이면서 학생들 사이에 이혼파 ‘뎀데교사’로 찍힌 교사 9명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반면 단순 1회성에 그쳤거나 사안이 미미한 교사 12명은 사실상 ‘혐의 없음’인 불기소 처분을 받고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이들 교사들이 이미 미투교사로 낙인찍혔다는 점에서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경우,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과 함께 해당 학교의 학사행정 등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지난해 광주 A여고와 B고교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교사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여고 교사 2명과 모 고교 교장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송치한 후 추가로 여고 교사 17명과 고교 교사 4명 등 2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부장검사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추행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교사 12명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여부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를 결정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적용받는다.

기소된 교사는 2010년과 2016~2018년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교사는 학생의 등을 쓰다듬고 속옷 끈을 만지거나 체육관에 들른 여고생을 꺼안는 등 추행했다.

검찰이 정서적 학대를 적용해 기소한 교사 9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복단추가 풀린 학생에게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느냐”고 희롱하고, 속옷이 약하게 비친 웃옷을 입은 학생에겐 수업시간 내내 살이 비치는 패션을 뜻하는 ‘시스루’라고 놀려댔다. 또 다른 교사는 학생의 손목을 잡고 “나 말고 다른 사람 사귀는 것은 아니지”라고 말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또 정소하는 학생에게 심한 욕설

을 하거나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쥐 행위로 정서적 학대로 봤다. 한 교사는 학생에게 수박을 건넨 다음 “뭘 그렇게 빨리 먹느냐. 남편하고 첫날 밤에도 빨리할 거냐”고 희롱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의 집 앞에서 자정 무렵까지 기다린 뒤 귀하는 학생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좋아한다. 이것주려고 왔다”고 말하는가 하면, ‘보고싶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학습교재 등에 하트를 그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다만 “사랑하는 000(학생이름)야, 너 나 짝사랑 하지”, “나는 예뻐서 봐주는 거야”, “넌 여자니까 나한테 애교를 떨고 기분도 맞춰야 한다”, “여자 대통령이 나오니 나라가 이 모양이다”는 등의 발언에 대

해선 부적절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밖에 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으면 열이 나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짜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혐의적용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2000년 이후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 적용이 강화되고, 학생들의 변화된 성 의식을 교사들이 못 따라온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헌혈하는 서구청 직원들 14일 광주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혈행사에서 구청 직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교사 병가안 이유없이 미루고 학생 자치활동 탄압

광주과학고 ‘갑질 교장’ 직위해제

해당 교장 “중징계 과하다”

공립 과학영재고인 광주과학고 교장이 학생·교사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인 것으로 파악돼 직위해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과학고를 대상으로 최근 감사 결과, 교장 A씨가 성실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한 교장 A씨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을 달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중순 1주일 가량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교사들의 병가안 등 결재서류를 이유없이 미루고 학생 자치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민원이 시교육청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교장 A씨가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한 사실이 여럿 발견됐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지난 2017년 공모로 부임한 교장 A씨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기숙사 입퇴실과 조식 배식시간을 앞당겼는데, 학생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대자보 등을 통해 반발하자 학생회장을 불러 회장직 사퇴서를 받는 등 탄압했다고 한다.

교장 A씨는 또한 2016년 해외현장학습이 전년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짜였는데도 불필요한 사전답사를 다녀온 점도 지적받고 있

다. 교장 A씨는 “학교장으로서 학생 전체를 보고 학교를 운영해왔다. 일부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으나 중징계 요구는 과하다. 교육적 철학, 소신을 가지고 일한 것을 두고 중징계를 준다면 누가 교육활동을 하겠는가. 징계위에서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 병가 결재보류의 경우 밤 11시에 전자문서로 신청해온데다, 평소 다른 교사와의 업무 협의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교장 권한으로 한 것이다. 해외체험학습은 세월호 이후 안전을 위해 관리자가 지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고흥군민 1000명, 전 군수 배임 혐의 고발

“건설사에 공원 부지 싸게 넘겨 자치단체 손실”

고흥군민 1000여명이 전 고흥군수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송모(65)씨 등 고흥 주민 1000여명은 “15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전 고흥군수 A씨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2월 고흥만 일대 수변 노을공원 부지 조성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 등으로 11억9000만원을 지급한 뒤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 추가 보상금 2억 8700여만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등 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또 “모 건설사에 공원 부지 3만2109㎡를 콘도 부지로 팔면서 실매입가인 14억 8000여만원보다 싼 8억9000여만원에 팔아 건설사에게 무려 5억8700여만원 상당의 재산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류형 복합 레저 관광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부지 매각 경위와 수변 노을 공원 조성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직원 사용을 명목으로 이 회사로부터 5억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구매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사전선거운동 혐의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겹치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 등에서도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일하던 매장서 100여차례 1300만원 빼내

광주서부경찰, 30대 여성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자신이 일하던 아웃도어 매장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김모(여·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이모(53)씨가 운영하는 한 아웃도어 매장 현금 출납기에 보관된 현금 9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총 127

차례에 걸쳐 13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근무했으며 이씨가 “현금이 없어진다”며 의심하자 지난해 12월 31일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개월 분량의 매장 CC-TV 분석을 통해 김씨가 현금 출납기에서 돈을 빼낸 뒤 주머니에 넣은 장면을 확인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트렁크가 안 닫혔네? ...외제차서 600만원 상당 골프백 ‘슬쩍’



○...고급 외제차 트렁크에서 수백만원짜리 골프용품이 들어있는 골프 가방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서행.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 1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벤츠 S클래스 트렁크에서 6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들을 훔쳐갔다.

○...경찰조사결과, 차주인 B(54)씨가 트렁크에서 물건을 뺀 뒤 자동단합 버튼을 누르고 일을 보러 간 사이 트렁크 끝 부분이 골프가방 끈에 걸리면서 다시 열렸는데,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고급 외제차 트렁크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외안을 살펴보니 골프가방이 있어 순간 욕심이 났다”며 선처를 호소.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38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별도주차장 201평 포함)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서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 ★ [서구]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0㎡(131.40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8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전시효과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2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 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경,공매 컨설팅

성공투자를 위한 재테크 경매과정 강좌 안내

2019년 3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본 강좌를 개설하여 이론과 실무 강의를 통해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답을 드릴 것입니다.

- 접 수 : 현재부터 2월말까지
- 기 간 : 3월 ~ 6월 (4개월 코스)
- 수강일 : 매주 목요일(19시~21시)
- 접수처 :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강 사 : 신인용 박사 010-2603-4343
- 수강대상 -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
-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 공인중개사 등

강사소개(경력사항)

- 前 광주 지방 법원 근무
- 조선대학교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
- 동강대학교 토지정보학과 외래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 교수
- 부동산중개법인(주)지오옥션 법률자문

※자세한 내용과 감면규정은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